

2011년 인도 서벵갈 주의회선거와 좌파전선 집권 34년의 종식*

김찬완 / 최미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지도자의 브랜드 파워 |
| II. 2011 주의회 선거 결과 | IV. 맺음말 |
| III. 좌파전선의 패배 요인 | 참고문헌 |
| 1. 개발전략 문제 | Abstract |
| 2. 거버넌스 문제 | |

Key words(중심용어): 인도(India), 서벵갈(West Bengal), 주의회 선거(State Assembly Elections), 좌파전선(Left Front),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트리나물 콩그레스(Trinamul Congress, TMC), 개발(Development), 거버넌스(Governance), 지도자 브랜드 파워(Leader's Brand Power)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인도 서벵갈 좌파전선의 34년 집권을 종식시킨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좌파전선의 핵심 패배 요인을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인도 주의회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 3대 중요 변수에서 찾고 있다. 즉, 개발전략 문제, 거버넌스 문제, 지도자 브랜드 파워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분석결과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에서도 이들 3대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벵갈 좌파전선이 새롭게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좌파전선은 조피바수와 부다데브 바따차리아를 이을 대중적 지지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좌파전선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농촌개발과 공업과 도시개발 사이에서 우왕좌왕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새로운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의 좌파전선은 뵤잡(Punjab)지방에서 쇠퇴한 것처럼 서벵갈에서도 더욱 쇠퇴하여 영향력 없는 지역군소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I. 머리말

2011년 5월 실시된 인도 서벵갈 주의회(State Assembly)선거¹⁾ 결과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이하 CPI(M))이 이끄는 좌파전선(Left Front)²⁾의 34년간의 집권이 종식되었다. 서벵갈의 좌파전선은 트리나물 콩그레스(Trinamul Congress, TMC)가 이끄는 연합세력³⁾에게 패배했다. 이는 과거 34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인도 정치사의 대 변혁으로 기록되었다. 좌파전선은 1977년 서벵갈을 집권한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정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지난 2006년 주의회 선거를 포함해서 매 선거마다 큰 격차로 압승을 거두어왔던 좌파전선은 충격 그 자체에 휩싸여있고 34년 동안 여당만 줄곧 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한때 인도 중앙정치의 대안으로까지 부각되었던 인도 좌파전선이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전례 없이 대패함으로써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좌파전선은 그동안 인도 정치무대에서 현 집권당인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INC)와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견제하는 제3세력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철저한 세족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힌두 근본주의 정당인 BJP와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좌파전선의 대패로 당분간 인도 정치지형은 INC가 이끄는 중도좌파 세력과 BJP가 이끄는 중도우파 세력 간의 양대 구도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라는 틀 내에서 지역 차원의 공산주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서벵갈 좌파전선의 패배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인도정치, 특히 주(state)차원의 정당정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도와 같이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향후 정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결과 분석은 향후 서벵갈 정치구조 변화는 물론 주정부의 주요 정책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는

1) 지난 2011년 5월 끝난 인도 주의회 선거는 서벵갈 이외에 연방 직할지 폰디체리(Pondicherry)와 아쌌(Assam), 따밀 나두(Tamil Nadu), 케랄라(Kelara) 주가 선거를 치렀다. 총 5개 지역의 주의회 선거에서 단연 서벵갈 주의회 선거가 주목을 받았다.

2) 서벵갈 좌파전선(Left Front)은 Communist Party of India (CPI),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CPI(M), Revolutionary Socialist Party (RSP), All India Forward Bloc (AIFB), West Bengal Socialist Party (Wbsp), Revolutionary Communist Party (Rasik Bhatt) (RCPI(RB)), Democratic Socialist Party (DSP), Rashtriya Janata Dal (RJD) 등 총 8개 정당 연합을 지칭한다. 이들 연합정당을 CPI(M)이 이끌고 있다.

3) TMC 연합세력은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AITC),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Nationalist Congress Party (NCP), 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 (SUCI) 등 4개 정당 연합을 말한다.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전선이 패배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인도 주의회 선거의 결과에는 다음 3가지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첫째, 인도 주의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전통적 요인은 종교, 카스트, 물가 등의 문제였다. 이들 3요소는 1980-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중반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종교와 카스트의 영향은 약화되었고 개발(development), 물가, 실업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Shah 2010, Kumar 2010, Kumar 2009). 이러한 현상은 2007년 구자라트(Gujarat), 2008년 델리(Delhi), 2010년 비하르(Bihar) 주의회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가와 실업은 과거에도 중요한 선거 결정요인이 되었지만 개발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핵심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둘째,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다(Shah 2010, Kumar 2010, Kumar 2009). 선거에서 국정운영의 참여성, 투명성, 효율성이 중요시 되었다. 정책의 결과만 보지 않고 결과 이전에 과정의 합법성, 합치성,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정부패, 법과 질서의 혼란 등이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08년 델리와 2010년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 명확해졌다. 거버넌스 문제는 2009년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투표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되었다(Hindu 2009: 2).

셋째, 정당 지도자의 브랜드 파워다(Chakrabarty 2006, Verma 2007, Misra 2009, 김찬완 2010). 인도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의 개인적 브랜드 파워 때문에 해당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별다른 선거 쟁점이 없을 경우 정당 지도자의 개인적 브랜드 파워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현상이 2009년 총선에서도 나타났고 오리사(Orissa) 주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Misra 2009, 김찬완 2010). 오리사 주에서 반(反)집권당(anti-incumbency) 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 자나타 달(Biju Janata Dal)이 2009년 총선과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총리인 나빈 빠뜨나익(Naveen Patnaik)의 개인적인 브랜드 파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변수는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작용을 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 서벵갈 좌파전선 집권 34년의 종식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위에서 기술한 3개의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선거와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에서 실시한 2011년 서벵갈 출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Special Statistics 2011). 2011년 5월에 주의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거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국내외에 부족한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또한 2011년 7월 11-16일 인도 현지조사에서 실시한 인도 정치, 경제, 사회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 서벵갈 좌파전선 집권 34년의 종식 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제II장에서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 서벵갈 좌파전선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하게 된 주요 요인을 개발전략 문제, 거버넌스 문제, 지도자의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분석한다. 맺음말 제IV장에서는 서벵갈 좌파전선의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II. 2011년 주의회 선거결과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인 TMC가 주도하는 연합세력이 총 294개의 의석 중 227석 획득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CPI(M)가 주도하는 좌파전선은 불과 62석만을 획득하여 34년 간의 서벵갈 집권을 마감했다. 2006년 주의회 선거와 비교해보면 좌파전선의 의석은 무려 161석이나 감소했다. 좌파전선을 이끌고 있는 CPI(M)은 단독으로 2006년에 총 294개의 의석 중 175석을 확보하여 좌파전선이 재집권 신화를 이어가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불과 40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참패를 당했다. 반면에 CPI(M)의 경쟁 대상인 마마따 바네르지(Mamata Banerjee)가 이끄는 TMC는 이전 선거보다 154석 증가한 184석을 획득하여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 이결과 TMC 지도자 마마따 바네르지가 서벵갈 주총리가 되었다. TMC와 연합한 INC도 지난 선거 때보다 21석을 더 확보하여 42석을 기록했다.

반면에 인도 중앙 정치 문대에서 최대 야당인 BJP는 289명의 입후보자를 내고도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는 다시 한 번 서벵갈이 힌두 근본주의 노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BJP가 위안을 삼는 것은 지난 선거 때보다 득표율이 2.13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고르카 잔목띠 모르차(Gorkha Janmukti Morcha, GJM)라는 신생 정당이 3명의 입후보자를 내서 3명 모두 당선시켰다는 것이다. GJM은 2007년 고르카랜드(Gorkhaland)라는 분리 주(separate state)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창당했다. 이는 향후에 서벵갈에서 고르카랜드 분리주의 운동이 다시금 본격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⁴⁾

이번 선거는 서벵갈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서벵갈 주 의회 선거의 투표율의 81.97% 보다 2.049포인트 증가한 84.4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벵갈의 주도인 꼴까따(Kolkata)의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84.46%인 점에 반하여 꼴까따는 6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난디그람이 속해있는 뿌르보 메딘뿌르(Purbo Medinipur)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투

4) 고르카랜드(Gorkhaland)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는 독립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120명 이상의 사장자를 낸 고르카랜드 주 분리운동은 다르질링 고르카 힐 위원회(Darjeeling Gorkha Hill Council, DGHC)가 창설되면서 약화되었다. 하지만 2007년 GJM이 청성되면서 다시 새롭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분리주로 요구하는 지역은 다르질링을 중심으로 한 6246 km²에 해당한다. 해당지역은 Banarhat, Bhaktinagar, Birpara, Chalsa, Darjeeling, Jaigaon, Kalchini, Kalimpong, Kumargram, Kurseong, Madarihata, Malbazar, Mirik and Nagarkatta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Gorkha_Janmukti_Morcha을 참조할 것.

표율은 90%에 육박했다.

흥미롭게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 모두에서 좌파전선은 완패했다. <표 II-2>에서 보는 것처럼 그레이터 콜카따(Greater Kolkata) 에 배정된 총 66개 의석 중 후글리(Hooghly)지역에서 단지 1표만 획득했다. 이는 좌파전선 34년 집권기간 동안 상공업 기반이 와해되고 실업이 가중된 것에 대한 도시민들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레이터 콜카따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이 좌파전선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이유는 난디그람(Nandigram) 경제특구와 싱구르(Singur)지역의 타타(Tata) 자동차 공장과 같은 사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다가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도에 포기한 좌파전선의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좌파전선은 난디그람이 속해있는 뿌르보 메딘뿌르(Purbo Medinipur)지역의 총 16개 의석 중에서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뿌르보 메딘뿌르지역에선 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좌파전선의 강압적인 토지수용 정책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III장에서 하고 있음). 이 지역의 투표율은 이번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전체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난디그람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좌파전선은 <표 II-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는 물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의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표 II-1> 2006년과 비교한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결과

	입후보자 수	2011 의석	2006년 의석수와 비교	득표율	1인당 입후보자 득표율	득표율 변화 포인트(2006년과 비교)
Left Front (LF)	294	62	-173	41.05	41.05	-9.13
Communist Party of India (CPI)	14	2	-6	1.84	38.55	-0.07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CPI(M)	213	40	-136	30.08	41.25	-7.05
Revolutionary Socialist Party (RSP)	23	7	-13	2.96	40.38	-0.75
All India Forward Bloc (AIFB)	34	11	-12	4.80	41.55	-0.86
West Bengal Socialist Party (WBSP)	5	1	-3	0.74	43.56	-0.15
Revolutionary Communist Party (Rasik Bhatt) (RCPI(RB))	2	0	0	0.23	32.80	+0.23
Democratic Socialist Party (DSP)	2	1	0	0.35	45.19	-0.01
Rashtriya Janata Dal (RJD)	1	0	-1	0.05	19.65	-0.03
Trinamool Congress+ (TMC+)	294	227	+176	48.35	48.35	+7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AITC)	226	184	+154	38.93	49.97	+12.29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65	42	+21	9.08	43.17	-5.63
Nationalist Congress Party (NCP)	1	0	0	0.03	7.11	-0.16
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backed by TMC (SUCI)*	30(2)	1	+1	0.31	47.42	+0.31
Bharatiya Janata Party (BJP)	289	0	0	4.06	4.13	+2.13

Gorkha Janamukti Morcha (GJM)	3	3	+3	0.72	79.46	+0.72
무소속	400	2	-2	3.29	NA	-0.50
기타 정당	482	0	-4	2.53	NA	-0.22

- (1) 2006년 LF와 TMC+가 선거 후에 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의석수와 득표율 변화를 합산하지 않음. 2006년, LF는 NCP와 무소속 후보자들과 연합하였으며 AITC는 BJP와 연합하였으므로 합산하였음. 2011년에 AITC는 INC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2006년 비교자료에는 INC의 의석변화와 이달투표율이 합산되어있고, 2011년에는 BJP가 별도표기.
- (2) 2011년 “기타 정당”에는 JDU, BSP, HMS, IUML, JDS, SMT, JNP, CPIML(L), RPI, JMM, JVM, RPI(A), LJNSP, SWJP, SJP(R), INL, AMB, AJSU, IJP, GNLF, PDS, JKP(N), KSMUL, AIMF, SDPI와 소수 정당이 포함됨.
- (3) *SUCI의 30석 중에 2석은 TMC를 통해 얻은 의석이며 28석은 INC에 반대한 후보자 수이다. 28석에 대한 SUCI의 득표율은 기타정당에 포함.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1B.

<표 II-2> 지역별-주요 정당 및 연합의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투표율과 의석수

지 역	총 의석수	투표율 (%)	Left Front		TMC+		BJP		기타 정당*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North	54	84.2	16	39.8	33	38.8	0	5.2	5	16.2
South East	71	87.1	18	41.9	53	47.9	0	4.3	0	6.0
Greater Kolkata	66	79.7	1	37.1	65	56.2	0	3.5	0	3.2
South West	103	86.9	27	43.5	76	48.4	0	3.7	0	4.4
Purbo Medinipur**	16	90.2	0	43.0	16	52.3	0	2.9	0	1.8
합 계	294	84.8	62	41.1	227	48.4	0	4.1	5	6.5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2A. 재구성

<표 II-3>주요 정당 및 정당 연합의 투표율과 의석수(도시와 농촌 선거구)

선거구	총 의석수	투표율 (%)	Left Front		TMC+		BJP		기타 정당	
			의석수	득표율 (%)	의석수	득표율 (%)	의석수	득표율 (%)	의석수	득표율 (%)
농촌	197	86.9	57	42.7	136	45.7	0	4.2	4	7.4
준 도시	45	85.3	5	39.4	39	50.5	0	3.9	1	6.2
도시	52	76.8	0	36.0	52	57.1	0	3.6	0	3.3
합 계	294	84.8	62	41.1	227	48.4	0	4.1	5	6.5

* 농촌과 도시 선거구분류는 Delimitation Commission 2002의 각 기표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라 도시/농촌을 분류.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2C.

선거 결과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좌파전선이 유일하게 TMC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계층은 부족민이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좌파전선은 부족민에게 할당된 총 16개의 의석 중에서 10개를 확보했다. 이는 부족민의 특성상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난디그람이나 싱구르에서 나타난 좌파전선의 우왕좌왕하는 개발전략에 대해 심판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SC)는 전통적으로 좌파전선의 핵심 지지 세력인데 이번 선거에선 많은 SC들이 TMC+를 지지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요인은 SC의 대부분이 농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전선의 강압적인 토지수용 정책에 반대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서벵갈에서 하층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급진 폭력 투쟁노선을 추구하는 마오이스트(Maoist) 구성원 중 SC 출신이 많은 데 좌파전선이 이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탕한 것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4> 지정선거구와 일반선거구의 주요 정당 및 연합의 투표율과 의석수

선거구	총 의석수	투표율 (%)	Left Front		TMC+		BJP		기타 정당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SC	68	87.6	20	44.4	48	47.8	0	4.0	0	3.8
ST	16	85.4	10	40.0	5	36.0	0	6.3	1	17.7
일반	210	83.9	32	40.0	174	49.5	0	3.9	4	6.6
합 계	294	84.8	62	41.1	227	48.4	0	4.1	5	6.5

SC : Scheduled Castes(지정 카스트)

ST : Scheduled Tribes(지정 부족민)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2B.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II-5) TMC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18-25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TMC는 이들 연령층으로부터 지난 2006년 주의회 선거 때 보다 21포인트 앞선 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좌파전선 34년 집권기간 실업이 가중 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Acharya, Swaminathan 인터뷰 2011). 또한 TMC의 대부분의 선거 입후보자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젊은 층에 속한 원인도 있다고 하겠다. 사실 당선된 TMC 의원의 대부분이 역시 젊은 층에 속했다. 반면 좌파전선의 경우 60세 이상 심지어 70세 이상인 후보자들이 많았다.

재미있는 것은 5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TMC에 대한 지지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선거 때보다 8포인트 앞선 4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은 좌파전선이 농촌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고 좌파전선 집권 34년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다. 아마도 이들이 좌파전선으로부터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농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좌파전선의 정책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인도 전체는 물

론 서벙갈에서도 농민들의 대부분이 이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표 II-5>연령대별 득표율 비교(2006년과 2011년 주의회 선거)

	Left Front		TMC+		BJP		기타 정당		N in
	2006	2011	2006	2011	2006	2011	2006	2011	2011
연령									
25세 까지	56	37	34	55	3	3	7	6	858
26-35세	49	40	43	48	3	5	6	6	1,192
36-45세	49	43	45	46	2	5	4	6	1,241
46-55세	48	43	41	48	1	4	9	6	823
56세 이상	53	43	38	46	5	3	5	8	799

* 모든 숫자에는 “N”의 수를 제외한 %며, 소수점은 반올림.

자료 :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CSDS를 통해 이루어짐,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연합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2006년 전체 응답자는 3,381임이며 2011년은 5,166임. 여기에 보고된 수치는 실제로 투표를 한 자들만을 나타내고 있음. 손가락에 투표 후 투표하였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어야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연합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3 재구성.

III. 좌파전선의 패배요인

1. 개발전략 문제

2011년 서벙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전선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다수 인도 정치, 경제, 사회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난디그람(Nandigram), 싱구르(Singur)와 같은 산업단지 개발을 들고 있다(Gowda, Roy, Pant, Acharya, Karanth, Khanna, Swaminathan, Basu 인터뷰 2011)⁵⁾. 1977년 집권이후 좌파전선은 중·하층 농민을 위한 농촌개발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여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중심의 개발전략 때문에 한때 인도에서 두 번째로 발전한 상공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서벙갈의 경제상황은 저성장, 고실업, 그리고 도시의 쇠퇴로 이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주총리가 된 부다테브 바따차리아(Buddhadev Bhattacharya)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개발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바따차리아 주총리는 한 인터뷰에서(Chattopadhyay 2007) 자신의 개발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

5) 좌파전선 소속인 포워드 블록(Forward Bloc) 사무총장 아쇼크 고쉬(Ashok Ghosh)도 최근 연이은 선거의 패배는 좌파전선이 기존의 개발전략으로부터 이탈한 것과 부패문제를 강력하게 척결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www.wsws.org/articles/2010/jun2010/wben-j18.shtml>).

각은 잘못되었다. 농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급속한 공업화를 지향해야 할 때가 왔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바파차리아 주총리가 이끄는 서벵갈 좌파전선 정부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해 기름진 농지를 산업단지나 경제특구로 변경시키거나 신도시를 추진해나갔다. 해당 지역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벵갈 좌파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려 했다. 난디그람과 싱구르 사태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2007년 서벵갈 난디그람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살림(Salim) 그룹의 화학공장이 들어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월 초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서벵갈 주정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결국 동년 3월 또 다시 경제특구 부지 입구를 봉쇄한 농민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부다데브 주총리는 난디그람에 SEZ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싱구르에서도 발생했다. 2006년 말부터 타타 자동차 공장 부지를 놓고 이에 반대하는 농민, 그리고 TMC와 같이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집단과 서벵갈 정부 간의 마찰이 심화되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서벵갈 정부는 강제적으로 반대세력들을 해산하려 했고 결국 이는 폭력충돌을 야기했다.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이 계속 지연되자 마침내 타타 자동차는 2008년 10월 서벵갈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⁶⁾

공권력까지 동원하면서 추진한 산업단지를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포기하고 마는 난디그람과 싱구르와 같은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농민들은 물론 도시민들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력하게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 때문에 좌파전선은 2008년 서벵갈 뻠짜야뜨(Panchayat) 선거를 시작으로 2009년 총선⁷⁾, 2010년 시의회 선거, 그리고 이번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농촌을 등한시하는 개발전략을 추구하자 좌파전선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 III-1>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2004년 총선당시 보다 10포인트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총선에서 농촌 유권자들의 52%가 좌파전선을 지지했고 2006년 주의회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한 지지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총선에선 42%로 떨어진 반면 도시에서의 지지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6) 이 부분은 김찬완 2010a를 주로 참조했음.

7) 좌파전선 지도자들도 난디그람과 싱구르지역에서의 갈등문제가 2009년 총선 대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Bhattacharyya, Dwaipayana 2010).

<표 III-1> 서벵갈 좌파전선에 대한 지지도 변화

계층	2004	2006	2009
농촌	52	51	42
농업노동자	48	58	46
기타 노동자	46	51	30
소농 및 소작인	43	50	44
부농	57	48	31
샐러리맨	39	50	62
도시	48	49	48
전문직	53	50	31
샐러리맨	39	58	52
비즈니스	54	48	39
숙련공 및 반숙련공	57	50	56

출처 : Hindu. 2009. "How India Voted", May 26. p. 5.

정체성 유지의 딜레마에 봉착한 좌파전선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을 다시 회복하기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열악한 무슬림들에게 10%의 직업할당제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다(Editorials 2010: 8). 그동안 좌파전선이 서벵갈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무슬림들의 실태를 잘 알면서도 이들에게 직업할당제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연이은 선거 참패이후에서야 이들에게 직업할당제를 제공해주겠다고 한 배경에는 난디그람 사태가 있다. 난디그람은 특히 무슬림 다수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좌파전선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를 수용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하자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를 서벵갈 좌파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자 서벵갈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물론 좌파전선 당원인 무슬림들까지 서벵갈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Hindustan Times. 2007. November 27. Kolkata.). 난디그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무슬림들의 분노는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무슬림들은 전통적으로 좌파전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지만 2011년 선거에선 많은 무슬림들이 TMC 지지로 돌아섰다.

<표 III-2>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결과 (무슬림 다수 선거구)

선거구	총 의석수	투표율 (%)	Left Front		TMC+		BJP		기타 정당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의석 수	득표율 (%)
무슬림 30% 이상	87	85.4	25	41.8	61	45.3	0	4.6	1	8.3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2D 재인용

더 나아가 좌파전선은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몇몇 중요한 정책도 발표했다. 좌파전선은 전통적 개발전략인 토지개혁이란 카드를 2010년 중반 다시 꺼내들었다. ‘농업용과 주거용 토지 분배계획(Scheme to Distribute Land for Agriculture and Dwelling, ‘Chash-O-Basobaser Bhumidan Prakalpa)’ 아래 서벵갈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시장가격보다 25%이상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이 토지들을 농업노동자, 농촌직공, 어민, 부족민, 지정카스트 등에게 농업용과 주택용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http://www.newkerala.com/news2/fullnews-10051.html>). 서벵갈 좌파전선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마(jute)노동자와 차 재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부다데브 정부는 황마 노동자의 퇴직금 30억루피(6억 달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임명했고, 차 재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 지역에 전기과 식수를 공급하도록 농장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http://cpim.org/content/defeat-politics-violence>).

하지만 2011년 주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이런 일련의 정책은 이미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에 너무 늦었다. 서벵갈 유권자들이 좌파전선의 개발전략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2009년 총선과 2011년 주의회 선거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Center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에서 실시한 “National Election Study 2009”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벵갈 전체 응답자의 71%가 싱구르 지역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들 중 70%가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난디그람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4%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중 48%가 좌파전선의 대응이 잘 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Hindu 2009: 5).

난디그람과 싱구르(Singur)와 같은 산업단지 개발전략에 크게 실망한 서벵갈 유권자들은 좌파전선이 해당 개발전략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 주의회 선거에서 또다시 혹독한 심을 하게 된다. 서벵갈 유권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아래 <표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에도 명확히 드러났다.

<표 III-3>서벵갈 주요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좌파전선 정부의 대응방법

사건	들어봤음	좌파전선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능숙하게 대응함	서툴게 대응함
Nandigram 폭력충돌	80	20	41
Lalgarh 사태	65	17	34
Singur 사태	77	20	40
Rizwanur Rahman 사건	52	13	25
Netai 살인사건	43	7	25

(1) 모든 수치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였으며, “못 들어봤음”이나 “답할 수 없음” 것은 이 보고서에 추가시키지 않음.

(2) 질문: “이제 지난 5년간 서벵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능숙하게 혹은 서툴게 대응하였습니까?”

자료 :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CSDS를 통해 이루어짐,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연합정당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4E 재인용

여기에 INC와 TMC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도 연방정부가 농민들을 포함한 하층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해 최근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슬로건 하에 좌파전선보다도 더 친서민적 정책을 추진하자 서벵갈의 좌파전선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김찬완 2010b: 159). 이러한 상황에서 서벵갈 좌파전선은 경제자유화 시대에 공업화와 도시화에 초점을 둔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농촌 개발전략도 추진하지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결국 2011년 주의 선거에서 대패했다.

2. 거버넌스 문제

최근 인도 주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참여성, 투명성,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책 집행 결과는 물론 과정의 합법성, 합치성, 합리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 유권자들이 거버넌스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서벵갈 주의회 선거에서도 거버넌스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등장했다. TMC는 당장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⁸⁾ TMC는 선거공약집에서 CPI(M) 주도의 좌파전선 집권기간 간부정당(cadre party)의 억압, 착취, 권위주의가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출구 조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좌파전선 정권의 거버넌스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주고 있다. 아래 <표 III-4>에서 좌파전선 주정부의 정책수행 만족도를 살펴보면 2006년 주의회 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중이 15포인트나 감소한 49%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1포인트 증가한 37%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57%에 달하는 응답자가 좌파전선을 주도하고 있는 CPI(M)을 부패한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벵갈 유권자들은 좌파전선 정권하에서 법과 질서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6년 선거 때보다 법과 질서의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 비율이 15포인트나 증가한 40%에 달했다(표 IV-6 참조). 서벵갈 유권자들은 특히 난디그람과 싱구르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낙살리트(Naxalites)라고 하는 마오이스트(Maoist)들의 테러 공격이 심화되면서 주의 법과 질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했다. 부다데브 바따차리아 정부가 공업화와 도시화 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에 소외된 하층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벵갈에서 마오이스트 테러가 2005년부터 새롭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벵갈 좌파전선은 마오이스트들과 대화를 하기 보다는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탕하기 시작했다. 이에 마오이스트들은 더욱 테러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서벵갈은 마오이스트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것은 마오이스트 테러에 의한 희생자 숫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05년엔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2008년엔 24명, 2009년 158명, 2010년 418명의 급격히 증가했다(Sunday Pioneer 2011).

8) 자세한 것은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Manifesto. <http://aitmc.org/manifesto.php>와 <http://ibnlive.in.com/news/full-text-trinamool-manifesto-for-wb-elections/146755-53.html>을 참조 바람.

한 조사에 따르면 마오이스트 테러문제와 더불어 난디그람 사태가 발생하면서 서벵갈 주의 법과 질서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벵갈의 법과 질서의 순위는 난디그람 사태가 발생한 2007년 인도 20대 주(state)들 중에서 16위를 기록했다. 2009년 총선이 실시된 해에는 최하위 20위에 머물렀다(Indian Today 2009: 24).

<표 III-4> 현 정부에 대한 정책수행의 만족도(2006년과 2011년)

좌파전선 정권에 대한 만족도	2006	2011	N in 2011
만족스러움	64	49	2,552
불만족스러움	26	37	1,912
의견 없음	10	14	697

- (1) 모든 숫자에는 “N”의 수를 제외한 %며, 소수점은 반올림.
- (2) “N”은 해당 행에 대한 표본의 크기를 의미.
- (3) 2011년에 대한 질문: 지난 5년간 서벵갈의 좌파전선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만족스러움과 불만족스러움으로 답해주시오. 동일한 질문을 2006년에도 했음.
- 자료 :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CSDS를 통해 이루어짐,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정당연합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2006년 전체 응답자는 3,381임.
-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4A 재인용

<표 III-5> CPI(M)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CPI(M)에 대한 문장	동의	동의하지 않음
부정부패가 많은 정당이다	57	21
정당 구성원들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 한다	41	30

- (1) 모든 수치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였으며, “답할 수 없음”이나 “의견 없음”은 이 보고서에 추가시키지 않음.
- (2) 질문 : “이제 서벵갈의 CPI(M)에 대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자료 :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CSDS를 통해 이루어짐,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정당연합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4F 재구성

<표 III-6> 좌파전선 정권기간 동안 법과 질서에 대한 시민 인식도(2006년 2011년)

범위	2006		2011	
	개선됨	악화됨	개선됨	악화됨
법과 질서 상태	61	25	45	40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4B 재구성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는 정책결정과 실행에 대한 참여성과 투명성이다. 하지만 서벵갈에서는 주민의 참여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참여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고 하는 지방 자치기구인 마을단위 그람 뽀짜야뜨(Gram Panchayat)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는 낮게 나타났다(김찬완 2008 : 42-44). 마을 뽀짜야뜨 단위에서 연금수령이나 주택신축 및 개보수 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 정작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약자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 수령 시 CPI(M) 당원이 아니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뽀짜야뜨의 추천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서벵갈 뽀짜야뜨 현지조사에서 나타났다(김찬완 2008).⁹⁾

CPI(M)의 개입은 단지 정부지원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뽀짜야뜨의 주요한 프로젝트 시행이나 결정에 있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뽀짜야뜨를 중심으로 한 CPI(M)의 농촌 조직 때문에 압뿔 콜리(Atul Kohli 1991:267)와 같은 저명한 정치학자들은 CPI(M)을 “잘 조직된 혁신정당(a well-organized reformist party)”이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 잘 조직된 혁신정당의 간섭이 결국 뽀짜야뜨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Bhattacharyya 1998, Bhattacharyya 2002). CPI(M)당원들의 간섭은 단지 뽀짜야뜨와 같은 공식 기구의 정책결정과 실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에 보는 바와 같이 CPI(M)당원들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보다 11포인트가 많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과 같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당이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벵갈 좌파전선 정권의 정책집행의 투명성은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하즈라(Hazra, 2005: 212)는 서벵갈의 마을단위 뽀짜야뜨의 투명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벵갈 정부의 복지정책 수혜자 집단들은 그람 뽀짜야뜨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빈곤층 이하에게 주어진 혜택도 해당 대상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뽀짜야뜨 구성원이나 좌파전선 당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반복되다보니 최근 서벵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전선이 대패한 것이다.

농촌 뽀짜야뜨를 장악한 정당 조직에 힘입어 서벵갈 좌파전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었다.¹⁰⁾ 즉, 선거 때가 되면 뽀짜야뜨 구성원들이 총동원되어 좌파전선을 지원하는 뽀짜야뜨의 정치화가 서벵갈에서 좌파전선의 연승에 기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선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서벵갈 주민들도 2005년과 2010년 비하르 주에서 표출된 것처럼 선거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서벵갈에서 좌파전선이 일방적으로 뽀짜야뜨를 통제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들 간의 파트너십은 물론 뽀짜야뜨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9) D.B. Ghosh 교수는 서벵갈 뽀짜야뜨에서는 전통적 카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카스트, 공산당 카스트와 비공산당 카스트가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인터뷰 2007. 1. 24).

10) 서벵갈에서 좌파전선이 뽀짜야뜨를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쉬와 기리쉬(Gosh and Girish, 2003 : 187-8)는 야당들의 미약한 정치적 입지와 주민참여정책을 원치 않는 농촌 중산계급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서벵갈 뽀짜야뜨 담당 공무원 딜립 고쉬(Dilip Ghosh 인터뷰 2007. 1. 24)는 정당들이 뽀짜야뜨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뽀짜야뜨 구성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도자의 브랜드 파워

서벵갈 좌파전선이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주총리인 바따차리아의 급격한 지도도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바따차리아는 집권당을 대표해서 선거를 이끌기는 커녕 자신의 선거구를 지키지도 못했다. 바따차리아는 서벵갈 자다브뿌르(Jadavpur) 선거구에서 24년 연속 당선되었고 2000-2011년까지 11년간 주총리를 역임한 명실상부한 좌파전선의 독보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바따차리아는 자신의 정부에서 수석 차관을 지냈던 마니쉬 굽타(Manish Gupta)에게 16,684표차로 대패했다. 바따차리아는 1967년 프라풀라 찬드라 센(Prafulla Chandra Sen)에 이어 주 총리로서 선거에 낙선한 두 번째 정치인으로 기록되었다.

아래 표<표 III-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따차리아의 인기도는 2006년 좌파전선이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했을 당시 45%보다 2011년에 14포인트나 하락한 31%로 감소했다. 반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마마따 바네르지의 인기도는 급상승하여 2006년 주의회 선거 때의 23%보다 무려 21포인트나 상승한 44%의 인기도를 자랑했다.

<표 III-7>전 주 총리출신의 주요 정당 지도자 인기

주 총리 선택	2001	2004	2006	2009	2011
Buddhadeb Bhattacharjee	28	23	45	30	31
Mamata Banerjee	35	11	23	20	44
Jyoti Basu	9	2	2	5	NA
Pranab Mukherjee	2	1	6	4	2

- (1) 모든 수치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였으며, 질문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모름”이나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이 보고서에 추가시키지 않음.
- (2) 조사에서 요청한 질문: “이번 선거 후, 서벵갈의 다음 주 총리로 당신이 선호하는 사람은?” (인터뷰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음, 모든 응답은 자동적이며 간접적이었음)
- (3) NA : 해당사항 없음.

자료 :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CSDS를 통해 이루어짐, 데이터는 주요 정당 및 정당 연합의 실제 투표율에 비례하여 책정, 2001년 전체 응답은 1,793, 2004년은 1,026, 2006년은 3,381, 2009년은 2,041, 2011년은 5,166임.

출처 : Special Statistics 2011. Table 4C 재인용.

마마따 바네르지는 서벵갈 정치무대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친민중 지도자로 구축 하는데 성공했다. 난디그람과 싱구르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마마따는 난디그람 경제특구 건설과 싱구르의 타타 자동차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편에 서서 토지 수용 반대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토지수용 반대 그룹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단식투쟁까지 강행하여 결국 난디그람 경제특구와 타타 자동차 공장 건설 철회를 이끌어 냈다. 난디그람과 싱구르에 대한 서벵갈 좌파전선의 잘못된 대응은 TMC지도자 바네르지의 정치 슬로건 ‘어머니, 땅, 사

람(Maa, Mati, Manush)'이 한 층 더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바네르지의 슬로건은 특히, 좌파전선의 핵심 지지기반인 서벵갈 농촌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바네르지는 농민들과 서민들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마마따 바네르지가 이번 선거에서 단지 농민들로부터만 각광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앞서 제II 장 선거 결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과거 2006년 선거에서 마마따 베네르지는 “주정부가 제안하는 대규모 외국자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 등을 포함해서 모든 시도에 대해 생각 없이 반대만 함으로써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만 보냈다”(백좌흠 2006: 184).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정권의 부진한 경제성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산업성장을 이룰 것을 약속하며 도시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공장건설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 UPA 중앙정부의 파트너 정당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으로 젊은 층과 도시 중산층을 표적으로 공략하기도 했다.

정당 지도자의 개인적인 브랜드 파워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거 서벵갈 선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CPI(M)의 쯤피 바수(Jyoti Basu)는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서벵갈 주총리를 역임하여 인도 역사상 가장 오랜 주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바수는 재임기간동안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은 물론 다른 정당에까지 존경을 받는 주총리였다.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쯤피 바수 개인의 브랜드 파워는 서벵갈에서 좌파전선이 1977년부터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소작제 개혁을 성공시킨 1970-80년대 정치인 쯤피 바수의 인기는 인도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수바시 찬드라 보세(Subhash Chandra Bose)보다 높았다(Raychaudhuri 2011). 자유민주주의 제도들 안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해가는 자유 공산주의(liberal communism) 자로서의 쯤피 바수의 브랜드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쯤피 바수는 1996년 총선결과 연합정당인 제3전선(Third Front)으로부터 연방정부 총리직을 제안 받기도 했다. 바수는 총리직을 CPI(M) 당내의 반대로 고사했다.

201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를 승리로 이끈 마마따 바네르지의 인기는 1970-80년대 쯤피 바수의 브랜드 파워에 견줄 만큼 강력했다. 바네르지의 인기는 단순히 농민과 서민들에 편에 서서 좌파전선의 개발전략에 반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네르지는 마오이스트 테러로 고통 받고 있는 서벵갈 민중 속으로 들어가 마오이스트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다. 바네르지는 마오이스트들을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좌파전선과는 달리 유연성을 보이면서 마오이스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바네르지는 마오이스트들을 단순히 테러리스트로 보지 않고 이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벵갈 좌파전선의 오랜 집권기간 낙후된 사회, 경제적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마오이스트 테러로 고통 받고 있는 서벵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면서 바네르지를 문제해결의 책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서벵갈 선거 기간 바네르지는 집권 석 달 안에 대화를 통해 마오이스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반 좌파전선 세력을 규합하는 바네르지의 정치적 유연성도 그녀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바네르지는 CPI(M)이 2008년 미국과의 핵 협정에 반대하면서¹¹⁾ INC가 이끄

는 인도 중앙의 UPA연정으로부터 탈퇴하자 발 빠르게 서벵갈 지역에서 INC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좌파전선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하기 시작했다. 좌파전선이 34년간이나 서벵갈을 통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야당 지도자와 탄탄하게 조직된 좌파전선의 조직을 상대할 강력한 야당 연합의 부재 때문이었는데(Banerjee 2006, Chakrabarty 2006: 3525), 이번 2011년 서벵갈 선거에 이 두 문제가 충족되어 TMC 연합세력이 승리한 것이다(Roy, Pant, Acharya, Swaminathan, 인터뷰 2011).

IV. 맺음말

2011년 실시된 서벵갈 주의회 선거는 인도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선거로 기록되었다. 34년간의 좌파전선의 집권이 종식되고 마마따 바네르지의 TMC가 이끄는 야당 연합세력이 대승을 거두었다. 이번 서벵갈 선거도 2000대 중반부터 인도 주의회 선거를 결정한 것처럼 개발전략, 거버넌스, 지도자의 브랜드 파워가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벵갈 좌파전선은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농민들의 권익을 무시한 개발전략과 부정부패, 강압적인 행정, 투명성의 결여, 주민참여의 부재 등의 거버넌스 문제로 이번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대패했다. 주총리이었던 부다데브 바따차리아의 브랜드 파워 약화 또한 좌파전선의 중요한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 정확하게는 말하면 TMC가 서벵갈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좌파전선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벵갈 유권자들이 TMC를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벵갈 좌파전선이 새롭게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나르마다 바차오(Narmada Bachao)와 같은 환경운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마오이스트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좌파전선은 쪼파 바수와 부다데브 바따차리아를 이을 대중적 지지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좌파전선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농촌개발과 공업과 도시개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새로운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의 좌파전선은 뽀잡(Punjab)지방에서 쇠퇴한 것처럼 서벵갈에서도 점차 쇠퇴하여 영향력 없는 지역군소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 견제세력이 없던 좌파전선의 독주체제와는 달리 서벵

11) 2007년 여론 조사기관인 GfK-MODE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좌파전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fK-MODE가 120개 선거구에서 12,17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의 37%만이 좌파전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중 56%만 미국과의 핵협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44%는 모르고 있었다. 핵협정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자들 중 60%가 UPA 중앙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afp_asiapacific/view/296422/1.html).

갈에도 이제 CPI(M)을 중심으로 한 좌파전선과 TMC가 이끄는 연합세력간의 양당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집권한 TMC연합 정권은 좀 더 건강한 정치구조 상황에서 34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간 좌파전선의 견제를 받으면서 서벵갈을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많다.

참 고 문 헌

- 김찬완(2010a). “서벵갈 좌파전선의 개발전략: 정체성 유지의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 김찬완(2008). “자치단체로서의 뽀짜야뜨(Panchayat): 서벵갈(West Bengal) 바만가뜨(Bamanghat) 뽀짜야뜨 사례연구.” 『남아시아연구』. 제14권. 제1호.
- 김찬완(2010b). “UPA집권 성공요인과 2009년 인도 총선거 특성연구.” 『남아시아연구』. 제15권. 제3호.
- 백좌흙(2006). “2004년 총선 이후 인도정치에서 좌익정당들의 부상.” 『인도연구』. 제11권. 제2호.
- Banerjee, Sunanta(2006). “Assembly Polls, 2006: Elections, ‘Jatea Style’, in West Bengal.”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i 15. April 15-21.
- Bhattacharyya, Harihar(1998). *Micro Foundation of Bengal Communism*. New Delhi: Ajanta.
- Bhattacharyya, Moitree(2002). *Panchayati Raj in West Bengal*. Delhi: Manak.
- Chakrabarty, Bidyut(2006). Left Front’s 2006 Victory in West Bengal.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1. No. 32. August 12 - August 18.
- Chattopadhyay, Suhrid Sankar(2007). “From Agriculture to Industry.” *Frontline*. Jan. 27-Feb. 09.
- Dwaipayan Bhattacharyya(2010). “Left in th Lurch: The Demise of the World’s Longest Elected Regim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anuary 16. Vol. XLV. No. 3.
- Editorials(2010). “Reservations for Muslim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v. No. 8. Feb 20.
- Gosh, Buddhadeb and Girish Kumar. 2003. *State Politics and Panchayats in India*. New Delhi: Manohar.
- Hazra, A.K.(2005). “Efficacy of Gram Sabha: The West Bengal Scenario.” Yatindra Singh Sisodia ed., *Functioning of Panchayat Raj System*. New Delhi: Rawat Publications.

- Hindu(2009). "How India Voted." May 26.
- Hindustan Times. 2007. November 27. Kolkata. <http://www.hindustantimes.com/Nandigram-fallout-Muslim-anger-was-waiting-to-erupt/Article1-259042.aspx>
- India Today. 2009. Special Issue, September 28.
- Kolhi, Atul(1991). *Democracy and Discontent: India's Growing Crisis of Gover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mar , Ranjeet(2010). "Nitish Kumar's Positive Track Records." *Frontline*. Vol. 27. No. 23. November 6-19.
- Kumar, Sanjay(2009). Delhi Assembly Elections: 2008.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4. No. 06. February 07 - February 13.
- Lama, Tawa and Rewal Sphanie(2009). "Studying Elections in India: Scientific and Political Debates." *South Asia Multidisciplinary Academic Journal*. Special Issue. No. 3.
- Misra, Surya Narayan(2009). "Naveen Patnaik Authors a New Chapter for Oriss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4. No. 39. September 26 - October 02.
- Norio, Kondo(2007). "Election Studies in Indi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Rai, Praveen(2009). "Issues in General Election 2009."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September 26. Vol. xlv. No.39.
- Raychaudhuri., Diptendra(2011). "Blind turn." News Insight. <http://www.newsinsight.net/archivedebates/nat2.asp?recno=2151>.
- Shah, Ghanshyam(2010). "Beyond Caste Voting: Modasa, Gujarat Revisited."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5. No. 04. January 23 - January 29.
- Special Statistics(2011). "Fifteenth Assembly Elections in West Bengal."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vi. no 25. June 18.
- Sunday Pioneer(2011). "Maoist terror in West Bengal." June 22. <http://www.dailypioneer.com/307761/Maoist-terror-in-West-Bengal.html>.
- Verma, A K. (2007). "Reverse Social Osmosis in Uttar Pradesh."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2. No. 10. March 10 - March 16.

□ 참고 사이트

- <http://aitmc.org/mamatimanush.php> 2011/7/10.
- <http://ceowestbengal.nic.in/> 2011/7/10.
- <http://cpim.org/content/about-us> 2011/7/10.
- <http://cpim.org/content/defeat-politics-violence> 2011/7/10.
- <http://eci.nic.in> 2011/7/9.

<http://eciresults.ap.nic.in/PartyWiseResult.htm> 2011/7/9.

<http://www.lawyersclubindia.com/news/Representation-of-People-Amendment-Act-2010-12389.asp> 2011/7/9.

<http://www.newkerala.com/news2/fullnews-10051.html> 2011/7/10.

<http://www.purbamedinipur.gov.in> 2011/7/10.

<http://www.wikipedia.com/kolkata> 2011/7/10.

http://en.wikipedia.org/wiki/Gorkha_Janmukti_Morcha 2011/7/10.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lkata-/Left-reforms-land-scheme-to-win-back-rural-voters/articleshow/6016429.cms> 2011/7/10.

□ 인터뷰, 2011. 7. 11-16

Acharya, Ashok.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Delhi.

Basu, Tarun. Chief Editor & Director, Indo Asian News Service.

Gowda, M. V. Rajeev. Professor, Center for Public Policy,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Karant, G.K. Professor, Center for Study of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Change.

Khanna, Anshuman. Additional Director, Economic Affairs and Research Division,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Pant, Manoj. Professor,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Roy, A. K. Professor(Retd.),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Swaminathan, S. Professor,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Change.

□ 인터뷰, 2007. 1. 24.

D.B. Ghosh. Professor.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Kolkata Office.

Dilip Ghosh. Director, Department of Panchayat and Rural Development, West Bengal.

Abstract

West Bengal Assembly Elections 2001 in India and The End of 34 Years of Left Front Rule

Kim Chanwahn*

Choi Mihea**

This study analyses West Bengal assembly elections 2001 ending the 34 years of Left Front rule in the state.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key factors in defeating the Left Front in the elections from the 3 major variables which have decided the results of state assembly elections in India since the mid-2000s. It, namely, focuses on issues of development strategy, governance and leader's brand power. The study shows that these three variable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feat of the Left Front in West Bengal elections 2001.

Therefore, the Left Front in West Bengal has to mak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people'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t process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ir organizations, if it wants to regain people's support in the state. Further, the Front must foster a new leader with a strong base of people's support who can succeed Jyoti Basu and Buddhadev Bhattacharya. Above all, the Front has to concern a new development strategy which can overcome dilemma situation between rur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Otherwise, the Left Front will decline further in West Bengal as it was in Punjab and be remained as a regional party in India.

■ 논문 투고일 : 2011년 7월29일, 논문심사일 : 2011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24일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M. A. Stud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